

트랜스POP展

2007. 12. 18~2008. 2. 29

아르코미술관

글 | 김현주 · 미술사, 추계예대 겸임교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은 너무 덥거나 추워 볼 만한 전시가 뜸했다. 그러나 문화가 이익을 창출하는 21세기형 주요 산업이란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록버스터 형식으로 방향을 끼고 열리는 세계 명화전시들을 여럿 목격하게 된다. 이런 전시는 광고에 비해 저렴한 수준 때문에 맘먹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다반사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점차 우리의 미술 문화 수준이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그러면서 고전과 근대미술에 치중한 이 전시들이 근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낡은 근대적 가치를 재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당대미술을 더 외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겨울 대중들의 발길이 한국에 온 반 고흐, 모딜리아니, 피카소 등의 작품을 향했다면,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린 <트랜스POP:한국베트남리믹스>전은 전문가들이나 당대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꼭 보아야 할 전시 중 하나였다.

아르코미술관의 2007년도 공동기획전인 <트랜스POP>은 재미 미술가이자 전시기획자인 민영순이 베트남계 미국학자 비엠티 레와 함께 기획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온 민영순이 이번에는 젊은 디아

스포라 세대인 비엠티 레와 손잡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 전시에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양국의 디아스포라 작가 총 16명이 참가하였고, 뉴욕대학교의 문학이론가 메리 프랫이 제기한 '접촉지대(Contact Zone)'의 미술이란 개념이 이 전시를 설명하기에 적합해 보인다. 접촉지대란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관계를 맺는 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이 전시에서 양국 접촉의 출발점은 베트남 전쟁 파병이란 역사이며 그것이 남긴 트라우마의 드러내기가 이 전시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거기에 그쳤다면 이 전시는 아마도 진부한 정치적 발언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전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라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양국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와 교차하며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 가는지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 파병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촉진시켰고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와 한류의 영향을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 또 하나는 서구에서 주변인으로서 모국을 대변하던 90년대식 디아스포라 입장에서 벗어난 점이다. 디



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양국 문화와 교차하는가,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인들이 어떻게 접촉 후 변화하는지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비디오 사진 콜라주 오브제 유화 등 다양한 매체들로 제작되었는데, 한국 작가들은 대개 증견으로 작품의 질이 고른 반면, 베트남 작가들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교육받은 작가들의 편차가 심한 편이다. 한국 작가 중 유순미 만이 비디오 작품 <빛강: 죽은 자와 말하기>에서 양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의 잔혹함의 여파와 전쟁으로 죽은 자들을 기억하며 살아 가야 하는 남은 자들의 회상이 담겨 있다. 아시아적 전통과 여성의 몸 등에 가해지는 서구의 억압적 규범에 관심을 가져온 재미작가 권소원은 자화상의 일화로 자신의 탄생년도에 발생한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언어화한 <동간>을 출품하였다. 그 외 이용백의 비디오 설치 <천사 군인>, 배영환의 일상적 오브제를 이용한 팜송 재연 및 대중미학에 대한 관심, 송상희의 <푸른 희망> 등, 대개 한국 작품들은 개별 작품으로는 훌륭하나 양국의 '리믹스'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자는 의심스럽다.

베트남 작가 중 미국에서 교육받은 딘 큐 레와 안 마이 레는 이번 전시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딘 큐 레의 세계 채널로 이루어진 대형 비디오 설치작품에서는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농사를 위한 헬리콥터의 용도의 차이를 대비시키며 베트남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일상과 교차하는지를 헬리콥터라는 기호를 통해 탐색하였다. 안 마이 레는 국내의 서바이벌 게임처럼 모의 베트남전을 통해 전쟁을 향수하는 베트남 전쟁세대의 모습과 미국 사막에서 이라크 파병을 위해 모의 훈련을 하는 미군의 모습을 다큐 형식의 사진으로 찍어 미국이 개입한 두 전쟁을 기억과 현실로 대비시킨다. 공동 작업을 하는 린과 램(Lin+Lam)은 미국회 도서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베트남 관련 선전 필름들을 활용한 비디오 작업을 제작

하는 등, 베트남과 베트남 출신의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형식 면에서는 약하지만 역사와 트라우마, 대중문화라는 주제에 더 접근하고 있다.

전시 기획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전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접촉 상황을 재현한 작품은 몇몇에 불과하고, 대개는 스스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시장 중심에 마련된 라운지는 아마도 전시 기획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생각된다. 이 라운지에는 한국과 베트남의 대중가요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장치 및 양국에 관한 신문과 잡지기사, 학술논문, 한류에 대한 정보, 베트남 관련 문학 작품 등을 모아 둔 아카이브가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곳이야말로 양국 문화의 활발한 교차를 감지할 수 있는 접촉의 공간이며, 그런 점에서 전시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1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베트남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초대된 다국적의 정치학자 인류학자 여성학자 건축가 문화 이론가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입장과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심포지엄 후 베트남인과 디아스포라들이 제작한 장, 단편 필름 상영은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삶의 변화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부대 행사들은 미술 전시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담기 어려운 기획 의도를 보완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 전시는 올 1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베트남에서는 아직 현대미술전을 허용하지 않아 전시할 수 없으니, 이런 열악한 조건을 딛고 작업하는 베트남 현대작가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위 왼쪽 · 송상희 <푸른 희망> C-프린트 140×110cm 2004
오른쪽 · 웅웁 만 흥 <시장으로 가라> 캔버스에 유채 101×101cm 2004
아래 · 전시 전경

